



# 時計塔

SIGETOP



2014년 1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1권 1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金晟煥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 제31차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 제31차 학술대회 Fund Raise 공고

2014년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되는 31st Annual Convention & Scientific Meeting이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으로 성황리에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시는 동문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시는 동문들께서도 학술대회에 Donation으로 Support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CME Program에 후원 광고를 내실 분도 있으시면 기쁘게 환영하겠습니다.

미주동창회 회장 김성환

**신년사**

**새해를 맞이하며**

김성환 (71, 미주동창회장)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다행에 건강과 희망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17일에 북미주 동창회를 대표하여 서울에서 매년 열리는 "합춘 송년의 밤"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모교와 대학 병원을 돌아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특히 제17회 합춘의학상 수상자이신 61년도

졸업 최용성 동문 부부가 참석하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미주 동창회에서는 매년 동창들의 친목을 다지는 컨벤션을 30년간 개최 왔습니다. 2014년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열리는 올해의 선상 컨벤션에는 많은 동창이 등록을 하셨지만 아직도 망설이며 등록 못하신 분들에게 아직도 좋은 자리가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같은 동기가 없어 주저하시다 단독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특별우대가 있을 뿐 아니라 참가자 분들이 모두 동기가 되어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울의대라는 한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5월 중순 6여년을 같은 교정에서 의학과정을 거친 동문들과 오손도손 함께 떠나는 나들이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신 것만큼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거운 만남의 장이 되도록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학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Dr. 강유구(yoogoo.kang@jefferson.edu or kangyoogoo@gmail.com)에게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Non CME에 참여하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50분 정도로 혹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시고 싶은 좋은 테마가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Dr. 이원택 (Cell 562-743-1436)이나 Mrs.김성환(Cell 323-573-6666 youngaekim77@hanmil.net)에게 연락 주십시오. 문학, 상식, 교양, 건강, 취미, 컴퓨터, 사진 등이 되겠습니다. 또 배가 항해하는 동안 학술과 교양 프로그램 외에 인문 과학에 대한 대담을 할 수 있는 "지담 (지혜로운 잡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합니다. 한 토픽이 30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발한 토픽이나 이것을 테마로 한다면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다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역사, 철학, 경제, 사회, 과학 분야 등이며 종교와 정치는 토론을 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담 담당인 Dr. 온기철(집 209-549-2931 jamessunohn@comcast.net)이나 Mrs. 김성환에게 연락 주십시오.

지난해에 감사했던 것은 돌아가신 이형모(49) 박사의 사모님께서 고맙게도 Memorial Donation \$1,000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하게 동창회를 위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건과 시간이 맞지 않아 Convention에 참석 못하시는 분은 동창회를 위해서 Convention Donation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CME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시고자 하시는 분 역시 기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계탑 창간 40주년이 되는 해로 충실한 동창회의 숨소리 그리고 귀와 눈 역할을 하게 만드신 역대 임원님들과 김병석 편집장을 위시한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동창회의 공동매체를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성수 Webmaster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창회라는 섬세한 화초는 동문 하나하나의 정성과 성의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사랑을 매일 매일 주셔야 건강하고 밝게 성장합니다. 밝아지는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을 두루 두루 이루시고 행복과 더 높은 발전을 동창회 임원 모두와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북미주 동창회장 김성환 드림

**신년사**

**말(horse)과 말(talk)과 말(end)**

김병석 (59, 정신과 정신분석 전문의)



새해 달력 첫 면에 건장한 말이 꼬리머리를 날리며 달리는 장면이다. 뿔린 시야에 산천을 배경으로 말은 나를 바라보며 달려오고 있다. 2014년 이라는 말(horse)이 나를 태우기 위해서. 시작한 새해는 한 인간을 태우고 질주를 할 것이며, 말의 힘은 먼 길을 달려보아야 알 수 있고, 사람은 긴 세월을 겪어보아야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증명할 것이다.

우리말에 동음이의어가 많이 있다. 그 중에 말(horse)과 말(talk)과 말(end)에 대한 생각이 가끔 의미를 새겨보게 한다. 말(horse)에도 여러 종류, 망아지(pony), 새끼 숫말(colt), 새끼 암말(filly), 숫말(Stallion), 암말(mare), 군마(steed), 경마(race horse), 달구지 말(carriage horse) 등등. 인생과 비슷하게 성별, 나이별, 직종별로 그 주어진 타이틀이 있다. 어느 말(horse)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생명과 자신의 의지를 자연의 섭리와 부합하여 최선을 살아가는 일이다. 처음에 빨리 뛰기 시작한 말이 경주 끝에서도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완주를 하는 동안에 수시로 전자와 후자가 바뀌는 말경기를 보면서 인간들도 느껴지는 바가 있으리라.

우리가 숨쉬는 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여 사는 것이 말(talk)인데, 대화, 덕담, 잡담, 독설, 역설, 연설, 소문, 훈계 거짓말, 참말 등 다양하다. 말로 은혜를 갚는 수도 있고, 말로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말로 위로하여 상대를 새 삶으로 이끌 수도 있고 말로 경멸하여 상대를 절망하게 하기도 한다.

정신과 의사로서 빠트릴 수 없는 지적은 말로써 생성되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불행이다. 특히 부부, 부모와 자녀 등 가족간에 깊숙이 자리잡은 부정적 기억과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잠재의식이 모든 사람의 일생을 무지좌지 하고 있음이다. 또한 40여년동안 정신분석의로서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말이라는 도구가 있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치유하며 인생을 전환하고 재창조하게 할 수 있음을 재인식시키고자 한다. 한번 내 뱀은 말 한마디를 다시 주어지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나, 2014년 말의 해에는 이제까지 자신이 해온 그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시인하고 회복하고 긍정적인 창조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성찰에 입각해보면 좋겠다.

내가 말(horse)처럼 달려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매일 매일 모든 사람과 나누는 말(talk)로 형성되어가는 내 가정, 사회, 문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자신의 인격은 물론 행복과 성공이 매순간 창조되어감을 인식하자. 말(horse)이 열심히 꾸준히 달리는 만큼, 서로를 살리는 말(talk)을 진실로 잘 이끌어가는 만큼, 자신의 인생은 밝아지고 넓어지고 생생한 삶으로 성장할 것임을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에게 말(end)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다. 시작부터 말(end)까지, 그 순간마다 즐기면서, 주어지는 것마다 최선을 다하여 지나가는 것이 말(end) 즉, 경기 결선 지점을 향해가는 선수의 힘찬 달림이다. 자신은 어떤 말(horse)인가, 경기의 어디쯤에 있는가, 어떤 말(talk)의 씨앗을 키우면서 살아오고 있었는가, 내가 지워야 할 말(talk)들을 찾아보고, 주변의 모든이에게 덕담과 용기를 나누어보자, 우리가 말(horse)처럼 달려서 살아온 인생의 말(end)에 남기고 갈 수 있는 말(talk)은 무엇일까.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고 고귀하게 영위하고 싶은 이들이여,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말(end)까지를 큰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말(horse) 그림이 여기 저기 보일 때마다 자신을 가장 멋지고 건장하고 행복한 한 마리의 말(horse)로 부각하여 보자.

**2013-2014 SNUCAA Class Representative**

Class	Name	Phone (Home, Office, Cell Phone)	E-Mail Address
1955	김웅식	(614) 889-8873	ungskim@yahoo.com
1957	정구영	(407) 876-9494 (407) 952-2288 (407) 876-9494	edwardkchungmd@yahoo.com
1958	이만택	(215) 968-3897 (215) 913-7519	mmtlee@hotmail.com
1959	최종진	(631) 979-6579 (631) 862-3540	choi007@optonline.net
1960	전희근	(215) 635-6030 (267) 231-8980	hikonchon@gmail.com
1961	황현상		hwhy520@aol.com
1962	여천기	(714) 544-0559 (714) 543-4447 (714) 357-0559	543-4488ckryumd@yahoo.com
1963	한기현	(973) 256-4041 (973) 818-0515	kihan00@yahoo.com
1964	주의돈	(908) 464-7731 (718) 667-2445 (908) 472-4999	Euidonjoo@gmail.com
1965	정길화	(614) 604-7740 (614) 314-6078	kchoung314@gmail.com
1966	최순채	(908) 561-9240 (908) 561-2122 (908) 304-2922	soonchoi@aol.com
1967	경우현	(607) 257-7271 (607) 273-4331	okyong@mac.com
1968	최윤석	(703) 753-1798 (419) 234-4154	younseokseo2004@yahoo.com
1969	엄규동	(973) 777-5299 (973) 471-0981 (201) 914-7844	kduhm@yahoo.com
1970	인정길	(740) 548-2088 (614) 234-8062 (614) 226-1156	yin500@hotmail.com
1971	김창구	(269) 687-9257 (574) 234-4176 (269) 687-8840	ckurtiskim@hotmail.com
1972	석창호	(516) 466-0399 (718) 461-6212 (917) 232-3500	changhsuk@gmail.com
1973	임준형	(201) 699-0456 (212)263-6343 (201) 803-6386	june.rim@nyumc.org
1975	김원정	(734) 856-1455 (412) 802-6858 (734) 717-1953	wjkim@upmc.edu
1979	김치갑	(201) 750-0897 (201) 541-1111 (201) 407-9644	cheegap@gmail.com
1983	전원일	(858) 587-7974 (917) 923-6018	wichusa@hotmail.com
1986	이영인	(201) 569-1895 (212) 305-3293 (201) 248-1630	FI127@columbia.edu
1990	손정현	(502) 329-2262 (443) 542-7042	eyedrohn@yahoo.com

**2013~2014 Local Chapter**

New England (Boston)	최인섭 (781) 899-3683 (72) (781) 744-3330	in.sup.choi@lahey.org
Greater NY	심인보 (201) 568-5056 (83) (201) 569-1806	markinboshim.md1@gmail.com
Central NY (Syracuse)	민발식 (315) 793-3238 (66)	balshikm@msn.com
Western NY (Buffalo)	전영성 (716) 689-9288 (67) (585) 658-2871	jys1941@verizon.net
Nothern NY (Albany)	한성택 (845) 331-7712 (57)	shan242700@yahoo.com
Greater Philadelphia	김영남 (215) 616-2111 (68) (215) 456-650	kimyn@einstein.edu
Maryland	신영철 (410) 272-7049 (59)	yjyjs@comcast.net
Nothern OH (Cleveland)	이계석 (440) 449-7239 (73) (216) 362-2274	keslee@gmail.com
Central OH (Columbus)	최영철 (614) 406-4156 (71) (419) 294-4991	ycchoy@hotmail.com
Western OH (Cind.Dayton)	이건일 (513) 891-1699 (68)	kleetraveler3@gmail.com
Minnesota	김태환 (952) 835-7353 (64)	Taekim19@gmail.com
Texas	김종영 (713) 461-3664 (72) (713) 973-2550	poongykim@aol.com
Southern California	최광휘 (818) 952-7120 (76) (323) 737-1717	thevipsurgery@gmail.com, akchoi52@gmail.com
Michigan	김유식 (734) 995-2929 (71) (734) 434-2477	yskim@hotmail.com
Greater Chicago	안창현 (386) 864-8864 (61)	charles.h.ahn@hotmail.com

# 동문동정 및 시무소식

## 이규용 선배님의 97세 생신을 축하합니다

뉴욕 Long Island 동쪽에 있는 Southampton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창회 2대 회장 이규용 선배님(41)께서 지난 11월 14일 97세를 맞이하셨습니다. 선배님께서 계속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노용면)

##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에 문대옥, 서인석 동문 선정



모교와 모교동창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3년 동창의 날 행사가 졸업 40주년을 맞이한 73년 졸업, 27회 동문들이 주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3명의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이 선정되었는데 미주에서는 2012년 미주 동창회장을 맡아 미주동창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봉사 실천해온 문대옥(73) 동문과 미주동창회와 시계탑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왔으며 또 차기 미주동창회장으로 내정된 서인석(73) 동문이 수상했다. 국내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총무로 성심성의껏 봉사해온 조수현(73) 동문이 차지했다.

## 이원택(71)동문 다섯번째 수필집 발간



남가주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본보 편집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있는 이원택(71) 동문이 그간의 저서 만화경, 요지경, 무아경, 혼미경에 이어 다섯번째 수필집 정신과 의사의 세상 엿보기 '신비경' (353쪽)을 발간했다.

계간 '문학예술' 수필부문과 격월간 '한국문인' 시부문으로 등단한 이동문은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펜 한국본부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원, 미주시인협회 회원 등으로 왕성한 문단활동을 하고 있다.

## 뉴욕지부 - 함춘의 밤 행사 보고

안녕하십니까? 백승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토요일 밤, 멋지고 아름다운 함춘의 밤을 우리 하나로 어우러져 참으로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130여명이 참석하신 이번 Annual Ball에는 뉴욕, 뉴저지뿐 아니라 먼 타주에서도 동창회를 사랑해 많이 참석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한 사랑이 담백 묻어나는 포즈로 찍혀진 커플 사진들, 푸짐한 음식의 카테일 아워, 서울의대 가수들의 멋들어진 노래들과, 69년 김중권 동문의 맛깔나는 민담, 75년 한민우, 79년 백승원 동문 두 부부의 강남 스타일 댄스 앵콜 공연, 끝까지 가슴 졸이게 했던 Cash \$1000을 포함한 푸짐하고 값비싼 경품들, 64년 조성준, 이웅만, 신두식, 67년 최승웅, 69년 육순재 동문, 다섯 부부가 합쳐서 이루어낸 그날 저녁의 하이라이트였던 Mamma Mia의 Dancing Queen, 넓고 넓은 Dance Floor를 가득 채우며 11시 30분이 넘도록 그곳 떠나기를 아쉬워하셨던 선배님들, 제일 마지막에 다 같이 큰 원을 만들어 친구, 동문들끼리 손에 손을 잡고 노사연의 "만남"을 한 목소리로 부르며 그날 저녁 우리의 행복했던 또 하나의 추억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3년 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도움을 부탁드리며 인사드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감을 실감합니다.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이규용배 골프대회와 "함춘의 밤" 우리 서울의대 Annual Ball들을 지나오면서 힘들고 가슴 졸이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들과 더욱 감사할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장소와 더욱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위해 덜컥 많은 숫자를 개런티 해놓고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 땀 흘리며 수없이 많은 전화를 돌려야 했던 일들, 허리케인 Irene과 슈퍼스톰 Sandy, 겨울 폭풍 Nor Easter들을 지나면서, 비록 전기도 없이 호텔에 머무시면서도, 또 밤눈이 어두워 밤 운전이 힘든데도 몇 시간씩 걸려 눈길을 헤치며 열심히 참석해 주신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은, 마음 풀이며 끄떡 없이 버텼던 저의 격정과 한숨들을 단번에 날려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파티가 다 끝나고 커플 사진들을 보내드리기 위해 사진 한장 한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힘들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고마움과 한분 한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동창회가 그렇듯이 우리 동창회도 숫자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양적으로는 비록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동문들 간의, 또 동기를 간의 끈끈한 사랑과 관심과 자부심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밝은 희망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동창회를 바라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년간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열심히 도와주신 총무 추재옥 선배님과, 재무 서인석 선배님께 이 시간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계탑 편집장 초빙 공고

시계탑 편집장을 맡아 지난 10여년 동안 수고해온 김병석(59, 정신과) 동문이 2014년 7월, 시계탑 40주년 기념문집 출판을 끝으로 은퇴합니다. 이제 새 편집장을 초빙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 동문들의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책임자의 자원과 동문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서울 의대 동창회 사무실 516-365-5500

## 최용성(61)동문 함춘의학상 수상



최용성 동문은 1962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Ph.D.와 소아과 전문의자격 취득 후 일평생 Basic Science Research에 몰두하여 최근까지 왕성한 연구업적과 leadership을 발휘해 왔었다.

Immunology/Cell biology가 주전공 분야이고 수일 전 지난해 말부로 그가

즐거 봉사하던 Ochsner Medical Foundation의 Distinguished Professor and Research Laboratory Director 직에서 은퇴했다.

최용성 추천을 발의한 動機: 지난 10여년간의 의료업무 발전 중에서 PET/CT 양전자단층촬영으로 첨단 진단이 가능해졌고 진료의학의 급진전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10년 전 까지만 해도 난치병이던 여러 종의 악성 종양들이 수술이나 고통스런 부작용 없이 치유되는 것을 보며 1970년대 Nixon 대통령의 'War on Cancer' 정책 선포 이후 NIH를 주축으로 한 관련 연구財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과반세기에 걸쳐 수많은 기초의생물학 및 임상의학 연구자들의 집요한 탐구노력의 결실이 임상의학에 반영되는 체험을 한 많은 의료인과 환자는 물론이고 연관된 가족 지인들의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우리 최 동문이 그들 연구자 중에 하나이며 특히 최근에 획기적인 치료 진전이 있는 lymphoma cell 기초 연구에 공적이 큰 것으로 안다. 최근 수년동안에 급속히 진전되고있는 여러 종의 암 치료효과(survival rate)의 종합적 평가는 정립되지 않았지만 필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lymphoma (Hodgkin's, NonHodgkins) 치유율 (complete remission)은 90%를 증가하는 것으로 기억된다. (The 10-year survival rate for Hodgkin's lymphoma is more than 90 percent if the disease is treated early, according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CCN). 근래에 암 재발이나 progressive disease에서 효과를 보인 Targeted therapies with antibody drug conjugates(ADC) and monoclonal antibodies도 최 수상자의 연구주제와 연관성이 있음을 그의 연구 보고서에서 볼수 있다.

최동문의 수상은 그의 일생을 바친 업적을 모교와 동창회가 간과하지 않은 경사이라 하겠다.

아래에 최용성 수상자의 Personal History and Career Highlights at Ochsner의 요약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란다. - 이희경 (61)

사진설명: (왼쪽부터) 박용현 동창회장, 김기웅 함춘학술상 수상자가족, 김기웅 함춘학술상 수상자, 최용성 함춘학술상 수상자, 김민선 함춘동아의학상수상자, 김선영 장기려의도상 수상자, 김선영 장기려의도상 수상자 가족

### Personal History and Career Highlights at Ochsner: Choi, Yong Sung (61)

From 1962, I undertook basic and clinical training at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Medicine, and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La Jolla, CA. After that, I held faculty appointments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and Sloan-Kettering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at New York City. I was a full Professor of Cornell University and coordinator of immunology program (chairman) of Sloan Kettering Institute for 12 years, and brought in more than \$1 M i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and American Cancer Society grants per year.

I was lucky to have met Dr. Robert A. Good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during my clinical training. Dr Good (cover of Time Magazine, March 19, 1973) was an outstanding mentor, and influenced my career development immensely.

However, above all, the career-defining moment for me was coming to Ochsner Medical

Foundation. Without question, my scientific career development would not be half of what it became without Ochsner. Dr. George Porter (then President of Ochsner Medical Foundation) invited me here in 1984. And the rest, as they say, is history.

To bring us up to date, I wish to outline some of the successes I have experienced in my research career at Ochsner:

(1) In 1994, we developed a unique human stromal cell line localized in the lymphoid tissues that is the major bulwark of bodily defense against infection and cancer. More than one hundred investigators worldwide are using it for their research of lymphoma and leukemia.

(2) With the unique cell line previously mentioned, we have launched an initiative to study the differentiation of human antibody producing lymphocytes and the tumor microenvironment that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lymphoma formation, metastasis, and drug resistance. In this regard, we have (so far) published thirty five original papers from 1994 to 2012. Amongst the top 20 field papers published since 1997, our small laboratory of Cellular Immunology has contributed a total of six, quoted by peers in 2012.

(3) More than twenty postdoctoral Fellows trained at my Ochsner laboratory have exponentially spread our productivity. A number of them are currently faculties at the academic institutes in Korea.

(4) In 2000, we cloned a novel stromal cell protein, CD320 of 245 amino acids in collaboration with Genetics Institute (Cambridge, Ma) that enhanced human lymphoma formation, reporting our discovery in the prestigious scientific journals such as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and Blood. I have received the US patent blocking monoclonal antibody that can be used for treating lymphoma.

(5) On recognition for our contributions,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invited me to organize a workshop and think tank to launch a new study section for studying tumor microenvironment in 2003. As a result, investigation of tumor microenvironment has become a rapidly expanding new research field in studying the drug-resistance and metastasis of cancer.

(6) In 2005, our work was published on the cover of Immunology, which is the official Journal of the British Immunological Society. This was a first ever for Ochsner. Subsequently, the editor-in-chief informed me of that my article was the sixth most downloaded Immunology article in the world, which helped make the Ochsner name a known quantity within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industry.

(7) I have received more than \$5M from National Cancer Institute and private donors. This is in addition to raising \$16M in private donations for building the new research building. This was necessary because the Ochsner funding alone could not support our accomplishment.

Over the years, these accomplishments have made Ochsner well known. That said, it would be impossible to build our small laboratory into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research laboratory it is today without the generous financial and facility support from Ochsner. There is no question about it - I am very grateful to Ochsner.





# 1973년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다녀와서

방 병 기(73, 대뉴욕)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일찍 미국에서 꾸러간 정장을 차려 입고, 경기도 일산의 주엽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모교를 가는 길입니다. 편리하다는 서울의 지하철, 한 시간을 내달려 종로 3가에서 내렸고, 다시 '마을버스' 라는 왜소한 차로 갈아타고, 비원 앞, 원남동 로터리를 돌아 대학병원 외래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과 의대를 연결하는 한적한 고갯길, 학창시절 가운 자락들을 날리며 실습을 다녔고, 대통령 주치의의 지내셨던 내과 민 교수님의 조수가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숨이 턱에 차게 강의실로 뛰어오던 그 고갯길, 이제는 줄지은 차량 행렬과 인파로 꽉 차니, 그 순수함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정각 10시, 대강당에 도착하니 가슴에 장미 한 송이를 달아주었고, 전날 제주여행에서 본 얼굴들, 그리고 졸업 후 처음 보는 얼굴들, 손봉기, 이동환과 서로 눈인사, 악수를 나누며 40년 전 마지막 시험을 치루고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던 그 강당에서 동창의 날 기념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동기를 박종범, 김봉덕, 최종무, 배성오, 황규현 그리고 차희중에 대한 묵념, 자랑스런 의대인 상 수상, 영원한 우리의 총무 조수현, 미주의 동기회장 서인석, 그리고 문대옥이 이어졌고, 박용현 총동창회장께서는 돌아온 후배들의 손을 잡아주며 환영해주었습니다.

11시 분관 앞에서 예의 기념촬영을 끝내고 곧이어 학교 탐방을 시작하였

습니다. 아담한 분수가 있던 중정, 격리된 공간으로서 잠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그곳, 물은 말라 있었고, 약리학 교실 쪽은 coffee shop, 생리학 교실 쪽은 아예 확 트여 있어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생화학, 해부학 실습실 자리는 학생회관과 교육관이 있었고, 교육관에는 mannequin에 붉은 잉크를 사용하여 venipuncture를 연습하는 곳도 있어, 18 gauge 바늘로 한 locker의 서정기, 배성오와 번갈아가며 찌르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장터와 같이 붐비는 병원 외래, 한쪽에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농성을 시작하는 노조원들, 바쁜 걸음으로 병원 안을 도는 일행들 앞으로 다가와 성상철 전 병원장에게 인사를 하는 병원 직원의 흐뭇한 모습, 암 병원 6층에 올라 '행복정원' 에서 창경궁과 서울 주변의 낯익은 산들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고압 산소실에서 밤새껏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새벽을 나서는 창경원 쪽에서 호랑이 포효소리를 들었다던 양요한 동문. 이제는 동물원이 제거된 창경궁이 단아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전은 의생명 연구원 11층 Garden View에서 중화요리로 가졌고, 커피는 역시 학림다방이었습니다. 그 다방의 목제 계단은 긴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플라타너스 잎을 밟으며 걸던 대학로는 노점상들의 차지였습니다.

저녁 6시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있을 만찬파티를 기다리며,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퇴계로의 대한극장을 찾았습니다. '관상' 이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섭니다. Peyton Place를 보던 아카데미 극장도 불경. 그곳의 풍경 역시 의구하지 않았습니. 관상쟁이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려 대신 하인을 변장시켜 내보냈던 수양대군은 끝내 왜 관상쟁이는 재껴두고 그 아들을 죽여야 했는지 그 잔인성에 의아해 하며 앰버서더 호텔로 향하였습니다.

이대 여성 암 병원장으로 빛을 내는 백남선, 충청도의 물이 좋은지 학창시절 그 얼굴 그대로 나타난 신영태, 삼성병원 안과에 있던 안병현, 강남에서 소아과 개업하는 송영명,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심재식은 영락없는 산부인과, 뇌 과학원의 기반을 쌓고 있는 서유현, EBS 명의 프로그램에 나오던 양정현, 국립 암센터 원장을 지낸 박재갑, 그곳에서 비뇨기 암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용, 그리고 제주도에서 보던



## 어두일미 (魚頭一味)

이원택 (71, 남가주)



내 어릴 적에 '내명할 아버지'라는 어른이 계셨다. 우리 할아버지의 5촌 당숙으로 예전에는 10촌 안이면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 쳐서 내왕이 잦은 편이었다.

'내명'이라는 말은 '남양'의 경기도 사투리로 대한제국 고종황제 할아버지의 묘가 있는 남양반도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내명할아버지가 오실 때는 심심찮게 조기나 고통어구이가 밥상에 올라 오곤 했는데, 이 양반은 으레 '어두일미'라고 하시면서 생선대가리를 먼저 드시는 것이었다. 나중에 좀 먹고 살기가 나아졌을 때 생선대가리는 아예 떼어버리고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한 적이 있다.

생선대가리는 뼈투성이로 지느러미 곁에 붙어있는 손톱만한 살을 빼곤

별로 먹을 것이 없다. 어류의 골이란 것도 눈곱만하고, '눈깔'을 빼 먹는 것도 그리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생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일본 사람들도 튀긴 새우말고는 대가리를 먹지 않는다.

내명할아버지는 대가리뿐만 아니라 생선뼈를 아작아작 다 씹어 잡수시면서 자신의 치아를 자랑하셨다. 생선뼈를 많이 드셔서 그랬는지 그 양반의 치아는 60대까지 30대의 그것을 유지하셨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턱뼈 안으로 돌아가셨다. 아마도 턱뼈를 너무 혹사시킨 탓이 아닌가 한다.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이상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희귀한 것에서 맛과 멋을 찾으려고도 한다. 그러나 흔해 빠진게 생선대가리이다. 무언가 자주 먹다보면 인이 박힌다지만 진짜 좋아서 생선대가리를 먹는 사람은 변태식욕자 빼고는 없다.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두일미'란 말을 만든 사람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여럿이 밥을 먹을 때 생선대가리를 먼저 드시는 분은 양보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내명할 아버님은 친척들이 조기 한 마리를 구워 올린 정성을 잘 아셨다. "생선은 어두가 일미라네." 하는 말로 먼저 첫

가락을 움직여 주인장의 체면을 세워 주고 진짜 맛있는 몸통은 다른 사람 몫으로 남겨주려는 따뜻한 마음의 발로이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한 친구를 집에서 접대할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배려심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면수구이 중에 눈알을 짓갈로 파먹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본 우리 애들이 질겁을 하고 그 후부터는 그 친구의 별명이 'eye ball man'이 되어 버렸다.

요즈음 같이 먹거리가 지천으로 깔려있는 세상에서는 생선대가리를 먹는 사람은 정말로 변태식욕자라고 낙인찍힐 만하다. 나는 어떤 여인을 만나서 당신의 육체는 건드리지 않을테니 정신적인 사랑만 하자고 그랬다가 퇴자를 맞은 일이 있다. 당신의 몸통은 고이고이 모셔두고 나는 형이상학적 연애로 만족하겠다고 하니 변태성욕자라고 한다. 'no ball man'이라고.

물질 만능의 육체파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정신적인 사랑 같은것은 고물장수도 안 받는다. 배려심이나 양보심은 개도 안 물어 간다. '어두일미'라는데, 머리가 제일 맛이 있다는데, 머리가 든 여자가 진짜라는데... 몸관계는 짜릿할 뿐이지만, 머리를 짜면 참기를 맛일텐데. 영혼의 동반자와 영

반가운 얼굴들이 속속 모여들고 이명철의 진행으로 만찬 파티는 시작되었습니다. 박영배는 '시월의 어느 멋진 날' 그리고 'My Way'를 색소폰 연주로 들려주었고, 오정성은 '그네'를 테너로 뽑았습니다. 조수현, 서인석 그리고 문대옥은 흘러간 시절 slide show로 젊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5년에 가질 미주동문모임을 소개했으며, 송과구 국회의원이 된 박인숙은 빠르고 짙막한 인사말을 하더니만 국정감사로 바쁘다며 종종걸음을 쳤습니다. 마지막엔 서로 손잡고 '사랑해 당신을' 합창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남부여행을 떠날 일행을 뒤로하고 장충동 고갯길을 돌아 밤 지하철에 몸을 실으니 지난 3박4일 제주도 엘리시안에서 가졌던 꿈같은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미주에서 아홉 명, 본국에서 23명 그리고 배우자들을 합쳐 56명이 어울린 모임이었습니다. 은빛 역새폴로 치장된 골프 코스, 같이 거닐던 비자나무(nutmeg) 숲길, 할머니 손두부 집의 소박한 점심, 천상의(Elycian) 컨트리클럽다운 숙소, 레스토랑에서 내다보이는 계곡 풍경, 저녁 만찬, 이 모든 것이 흠없이 좋았습니다. 이 모두를 계획, 준비하고 안내해준 최인영 동문 감사합니다. 제주 모임에서는 요양 병원을 운영하는 정근상, 국립의료원 방사선과 운영, 소아과 개업하는 김계태, 성모병원 외과에서 은퇴한 이명덕, 경희대 종양내과의 조경삼, 그리고 순천에서 내과를 개업하는 강진영 동문을 졸업 후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수현 총무의 전언에 따르면, 우리 동기생들은 유명을 달리한 동문들의 유자녀들을 그동안 대학 졸업까지 도와주었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낸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 반을 지나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원한 사랑을 해 보았으면...

내 환자 한 분은 60이 넘어도 고등학교 때의 '짝'을 그리워한다. 그 여인이 남의 여자가 된 지가 '고려적'인데도 첫사랑의 추억을 곱씹으며 독신으로 살고 있다. 아직도 열여섯 살 먹은 Kathy라는 소녀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전을 떠나지 않는다고 히죽히죽 웃고 다닌다.

남이 하지 않는 짓은 골라서 하고 다니는 나는 요즘 생선대가리를 버리지 않고 올리브 오일과 섞어 바삭 태우거나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고 폭삼아서 아작아작 씹어 보기도 하고 우물우물 삼켜 보기도 한다. 고소하고 달작지근 하다. 첫사랑 맛이다.

집단생활을 하던 예전에는 '어두일미'란 배려심의 상징이었고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현대에서는 '머릿살을 발라 먹은 맛'은 조그만 자기만족이다. 정력에도 좋다고 뽕을 한번 쳐볼까. 아무래도 꼬랑지 보아야 대가리가 더 낫겠지. 형이하학적 보아야 형이상적인 연애가 더 오래 가겠지.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타는 생선대가리에 박혀있는 동태눈같이 나를 찌러본다. 어두일미 좋아하다가 머리가 둔 모양이라고.

졸업 4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서울을 향한 동기들은 모두 12명 그중 10명과 그 부인들이 남도여행을 나섰다. 서울에서는 조수현, 이명철 선생님 부부께서 동행해 주셨다.

예정한 남도 여행은 진주로 향하면서 시작했다. 아침에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관광버스가 기다리는 엠버서더 호텔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누가 제일 늦게 버스에 오른 사람이었을까. 바로 나였다. 모임 시간을 맞추어 나갔건만 모두 일찍 와서 버스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마치 늦은 사람처럼 미안한 얼굴을 해야 했다. 굳이 남편은 당신이 제일 늦게 나왔다고 친절히 확인을 시켜주었다.

첫 목적이 진주로 떠났다. 도착하는 즉시 김석희 동기께서 대접해 주는 불고기와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었다. 진주도 전주에 버금가는 비빔밥 맛을 자랑한다고 한다. 진주가 고향이신 시어머니께서 입맛이 없으시면 비빔밥을 준비하시곤 했는데 이제야 왜 비빔밥을 찾으시는지 알게 된 듯하다. 점심 후에는 중심지에 자리 잡은 문진수 선생님의 병원(건물) 구경을 갔다. 주차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떠나는데 부인께서 손수 고른 실크 머플러와 타이를 모두에게 선물해 주었다. 나중에 우리 일행은 그걸 걸고 두르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둘러서 진주를 떠나 순전을 향했다. 순전은 국제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를 후는 폐장이라니 우리는 운 좋게 행사에 맞추어 온 셈이다. 강진영 선생님의 부인께서 우리들의 입장표까지 사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도 관광은 사람들이 많아 다른 곳은 생략하고 갈대밭 길을 걸어 자연 생태 보존 지역이라는 곳을 구경했다.

갈대밭은 제주도의 억새밭처럼 햇살을 받고 바람을 타며 흰 눈처럼 펼쳐지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은 없었지만 자연 그대로 방치한 듯 가꾼 듯 광활하게 이어진 풍광을 즐길 수 있었다. 바닥에는 농게라는 작은 게가 무수히 기어 다니고 있었는데 어렸을 적 간장에 담가 그 짠 맛으로 밥 한 그릇을 비우던 그런 게가 아닌가 싶다. 짙둥어라는 아주 작은 물고기가 걸기도 하고 헤엄치며 놀고 있는 늪을 내려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나무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구경을 마치고 천황식당이라는 곳을 갔다. 닥터 강께서 예약한 그 식당은 순전이 자랑하는 교자상이 휘어지게 차려내는 한정식 집이었다. 식당 이름부터가 일제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큰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이것저것 요것조것 맛보고 배 불러 먹다보니 먹기 위해 돌아다니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먹는 거 좋아하는 내 취향에 딱 맞긴 하지만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먹어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고

행(?)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배가 불러 안 먹는 것은 대접하는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거니와,

저녁 후에는 순천에서 가까운 여수의 베네키아라는 호텔에 여정을 풀었다. 건물 앞으로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전망 좋은 호텔인 것은 아침에 나와서 알았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을 먹고 남해를 잠시 돌아 거제도도

해서다. 그곳에 사시는 동기 조성래 선생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해 주셨다. 우리들에게 화를 먹고 다른 음식 예를 들면 꼼장어, 매운탕, 장어 구이 등을 선택하라 하셔서 우리는 버스에서 이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느라 장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이 선택 요리는 먹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너무 많은 화와 사이드 디쉬가 있어

경주의 베네키아는 거제도 호텔 보다 나은 곳이었다. 잘 자고 일어나서 마지막 코스인 울산에 향했다. 울산대학의 총장으로 재직 중이신 동기 이철 총장님이 울산의 현대 자동차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총장님의 주선으로 미국에서 단체로 온 손님들은 거대한 현대자동차의 위력을 감상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 해졌다. 가이드가 설명하는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고 시설이 좋은 울산 병원도 둘러본 후 문화센터 건물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중국 음식은 여행 후 처음인고로 의미가 있고 맛도 새로워서 모두 행복한 듯 했다.

점심 후에는 현대 조선소 구경을 나섰다. 현대 조선소에서 일하는 인력의 숫자며 크기에 수주하는 업적 등은 여기서 생략하겠다. 배를 주문할 의사가 있는 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바란다. 수 천 톤의 배를 계약하기 위해 머무는 해외손님을 위해 한 식으로 꾸민 영빈관이 있는데 그곳 보료에 적잖아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현대를 참살한 정주영 회장의 위력이 새삼스러웠다. 해외에 사는 우리들은 한국의 기업들,

# 즐거운 남도 여행 3박4일



임혜기(73년 임준형 처)

갔다. 남해는 내 남편 임준형씨의 원적인고로 그분이 아는 척하는 남해의 정보를 흘려들으면서 거제도에 있는 애광원을 찾았다. 박인숙 동기께서 연결 해주어 점심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합창 공연을 준비해 손님을 반기는 장애자들과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 애광원의 커피 룸에서 내다보이는 바다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스페인의 어느 장소에 온 듯한 애광원 건물도 거제도라는 섬의 명물일 것이라는 기분이었다. 점심 후 의도를 갈 예정이었는데 풍랑으로 배가 다니지 않아 대신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관람했다. 나로서는 의도를 다녀왔기에 수용소를 둘러보는 것도 좋았다. 오래 전부터 거제도수용소를 한번 가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이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우리가 투숙한 거제도의 베네키아는 건물의 크고 웅장함에 비해서 안의 시설은 그저 그런 편이었다. 어디서든 통하던 와이파이기가 되지 않았다. 이제 한국은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통해 카톡으로 미국의 친구들과도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한 나라다. 여수와 통영 그리고 거제도도 통하는 바닷길과 개통된 다리와 광양만의 아름다움은 어느 유럽의 바닷길에 뒤지지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의 남쪽에는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많은 것을 이제야 보고 체험한 셈이다. 거제도에서 하루를 자고 아침은 호텔에서 나와 하이웨이의 휴게소에서 각자 원하는 음식을 사먹기로 했다. 우리 부부는 김밥과 우동을 사서 나누어 먹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지방 여행을 세 차례 했는데 그 때마다 휴게소에서 사먹는 음식은 골고루 먹어봤지만 대충 맛이 없다는 것을 터득했다. 그래도 휴게소에서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지는 건 여행은 먹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내 머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아침을 먹고 그길로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향했다. 물론 점심을 먹기 위

서 짓가락을 들 여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절반만 주문해도 되지 않았나 싶다. 먹지 못하고 남긴 음식이 많아서 정말 유감이었다. 이렇게 먹고 배가 불러 꼼짝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버스 안에서 즐기고 있는 우리 일행을 데리고 버스는 경주로 향했다.

경주의 불국사를 갔다. 몇 번 왔다 갔기에 나로서는 새로운 기분이 없었지만 오랜만에 오시는 분도 있었고 남편은 처음 온다고 하니 믿을 수 없는 일생을 산 것 같았다. 부산에서 태



어난 사람이 한 시간이면 오는 경주 불국사를 안 와 보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은 정녕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불국사 길을 오르락내리락 열심히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걷는 운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위를 비워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별로 효과도 없이 약속 시간에 맞추어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야했다. 정말 아무것도 먹을 생각이 없고 먹을 수도 없을 거 같았는데.. 세상에. 또 앉아서 잘 먹다니..

이곳 뇌센터의 책임자로 계신 동기 서유현 선생님께서 저녁을 한식으로 대접해 주었다. 먹는 이야기를 줄이려 해도 가장 중요한 행사인 먹는 프로그램은 건너 뛸 수 없으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양해해 주세요.

우리들은 뇌 연구에 불철주야, 불요불굴 박차를 가하고 계신 닥터 서의 프로젝트 설명을 듣고 와인을 곁들인 한식으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뇌에 좋아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주는 비타민을 선물로 받았다. 반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선물 주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현대, 삼성과 엘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두들 잘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다시 버스에 올라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즐거운 만남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코스인 수원으로 향했다. 저녁시간에 그곳을 관광할 이유는 없고 김성수 선생님 내외분이 대접해 주시는 수원 갈비를 먹기 위해서다. 유명한 수원 갈비와 상추쌈이 주요 메뉴다. 나는 개인적으로 고기구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생전처음으로 그 유명한 수원 갈비를 먹었다는 귀한 체험을 갖게 되었다.

종착지인 엠버서더 호텔에 돌아오니 10시경이다. 허둥지둥 인사만 하고 헤어진 미국의 동기 분들은 다시 볼 기회가 많지만 그토록 신세를 지고 헤어진 여러 동기 선생님들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만나자고 인사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요.

제목은 남도 여행인데 결국 먹기 여행의 기술로 끝납니다. 체중을 3파운드 올려 주신 여러 동기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제5면에서 계속> 쉬어 떠들라고 매일로 그 반씩 덜어 rotation을 하던 중구 난방, 그중에서 고영희가 사진담당을, 김택수는 나중, 'Sin City'에 앉아서 그 엄청난 양을 수집, 편집-제작에 큰 수고를, 그렇게들 수고를 했다.

좀 안타깝고 딱하던것 하나, 경석이 병학이의 여기 아내들이, 매일 식사 때마다 자리 잡고 바다에 앉기-먹고 일어서기에 열 먹었던 일. 늪어 뺨뺨해서 우리도 앓을씩-설씩마다, 짚고도, "아이쿠! 어이쿠!"를 연발하는터였으니.

좁은 흥분들도 했던 노인네들, 감사하게 즐긴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 서로 안도의 맘으로 뒤엎겨 분주한 "Bye!"들을 한다. 내내 건강들 하자구.

"인생은, 어차피 '이별'이 아니더냐"는 말, 그게 유행가적이건 무슨 대단한 철학적인 한 line이건, 그렇게들 우리 하는 작별들.

그래, 우린, 슬하고 더러는 벅찬 이별들을 얼마나 겪으며 살아온 닳고 닳은 우리 인생들이냐.

몇번으로 더 작별을 한들, 바라고 기도컨대, 우리 모두 건강들 하자구.

### A Post-Script

빼놓고 안할수도 없는 '후기 하나'. 그토록, 버스 오르내릴적 마다, 노인네들 "식탐말고, 오줌들 눈 담에 차에 오르고, 제발 당부컨대 낙상 말고, ..." 이 세가지들 때마다 다짐 다짐을 했건만, 일정 다 마치고 헤어진 담날에, 왜 하필 내가 일을 당한다. 우리들, 들른 열흘간, ' 좋기만 했던일' 그 액땀인가. Grand finale(?)로 막판에 엉뚱한 사고를 당한다.

다 즐거이 마치고 감사하-무사히 돌아와, 분주하고 들른 작별들을 하고 헤어질진 바로 담날. 내 옛쟁들 또 함모여 회포풀 happy hour에 다섯이 모여

드는 저녁참에, 내 이 불찰로 Freak an accident/Such an ill-fortune을!

함 걸어본다던 청계천 walkway에서 호되게 엎어져, 이 노인네 무릎 하나가 "shattered", 박살이 난다.

그래서 보름을 서울서 그런 고통, 돌아오면서 그 고평, 여직껏 이 불편을.

늦가을 시즌마감, 나 없는 친구들

골프치는 날이면 "비나 와라, 빌어먹을!" 심통을 부리며,

그러면서, 나중, 주위에서 어쩔 수 없이 듣는다. 평생, 그 아파 고통인 그런 환자들, 네 손으로 수술하고 돌보면서, 뻔해, 그 육박지르기가 일수였을 거라구.

그래, 얼마나 아픈줄 이젠 알았느냐 구.

##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이번 출판위원회 시계탑 편집모임은 후러싱 삼원각에서 12월 18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있었다.

들어온 원고들의 편집을 마치고 아래에 설명한 몇가지 현안을 토의했다. 시계탑과 시계탑 문집 제5호에 실을 유료 광고에 대한 공고와 10여년 편집을 맡아오던 편집장/출판위원장이 40주년 기념 문집 출판을 마친 직후에 임기를 마치기로 하였고, 차기 편집장 모집 공고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능한 후계자가 곧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40주년 시계탑 문집에 참여할 원고의 저자들에게 곧 연락을 하기로 했다. 모임은 저녁 9시 반에 끝나고 새해 인사를 나눈 후에 모임을 마쳤다.





紙上法醫

남편인가, 애인가



뉴욕시 퀸즈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시체 다섯이 발견되었다. 여자 시체 넷이 방 한쪽 구석에 있었고, 남자 시체 하나가 그 결방에 있었다. 남자 시체 곁에는 라이플총(장총)이 있었다. 여자 아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있었는데, 이들 두개골의 파괴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아 남자 시체 곁에서 발견된 라이플이 그 무기인 듯 보였다. 총에 맞지 않은 아이는 그 집 식구가 아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잠시 맡기고 갔다고 했다. 그 아이는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

이 집 식구들은 수년 전에 남미가 이아나 공화국(Guyana)에서 이민해 왔다. 동네 사람들에게 의하면 부부 싸움이 꼭 잦았다고 했다. 남편은 37세 난택시 운전수였는데, 그가 아내에게 폭행했으며 특히 술에 취하면 그랬다고 했다. 아내에게는 애인이 있었는데, 남편의 혹독한 태도가 그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는 누구나의 짐작거리였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 밤에도 부부 사이에 큰 말다툼이 있었다. 남편이 주먹질이라도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드디어 자기는 이제 이혼을 원한다고 했고, 자기에게는 애인이 있다는 말까지 했다. 그녀가 그 남자 친구와 교제하지도 벌써 6개월쯤 되었으니, 남편이 그것을 이미 눈치 채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 남자 친구도 가이아나에서 왔고, 37세이며, 택시 운전수

노 용 면(55, 대뉴욕)

였다. 그런데 그는 아직 미혼이었다. 경찰에 의하면 그날 밤 그녀가 애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아내의 폭탄선언을 들은 그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 하고, 내일 아침 다시 거론하기로 하자. 내일은 아무데도 가지 말라. 나도 일하러 가지 않을 테니." 라고 했다.

남편과 다툰 후 그녀는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왕에도 그랬듯이, 그녀가 남편한테 자기에게 애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털어 놓았더니 남편의 반응은, '이 문제에 대하여 내일 아침 다시 거론하자.' 고 하는 태도였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어떤 큰 일을 저지를런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에게는 총도 몇 개 있으니 자기를 죽일런지도 모른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남자 친구가, 그녀더러 아침 일찍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라고 충고했다. 그랬더니 그녀 대답이 "글쎄 무슨 일이 생기는지 좀 두고 봅시다." 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남자 친구가 그녀의 안전에 대해 몹시 걱정된 나머지,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경찰이 아침 7시 30분에 그 집에 도착했는데, 부인은 아래층에 있었고, 남편은 이층에서 아직 잠을 자고 있다고 했다. 경찰관이 이층에 올라갔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경찰이 염려할만한 일은 하나도 없으며, 자기는 곧 일하러 나간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가 급하게 집을 나섰다. 그녀는 경찰이 집을 떠나기도 전에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일들을 일러바쳤다.

11시쯤에 그 집에 불이 났다. 누군가가 경찰에 알리기를, 화재 현장에서 웬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모습이 그 집 남편 되는 사람 같더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처음 알아야 할 것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남자 시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가 그녀의 남편인지 아니면 남자 친구인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주머니 속을 들쳐보니 남편의 운전면허가 들어 있는 지갑이 나왔다. 그 후 지문 조사로 그가 과연 남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 질문은, 그러면 누가 그 남편과 가족들에게 총을 쏘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남편의 머리는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위쪽 3분의 2정도가 라이플총에 의한 폭발로 뿔뿔러져 있었다. 라이플총은 권총에 비해 파괴력이 훨씬 강하다. 부서진 두개골 조각들을 모아 머리를 원상형태로 만든 후, 총의 발사 거리를 알기 위해 이들 조각들을 자세히 검사했다. 구강 내부를 보니, 입천장에 해당되는 부분과 왼쪽 뺨에 해당되는 부분이 검게 착색되어 있었다.

이 검은 침착물이 총탄 발사로 생긴 화학물질인지 아니면 화재로 생긴 숯 인지를 알아내야 했다. 그의 기관과 기관지속에는 숯 침착이 없었다. 즉, 그가 죽기 전에 많은 양의 숯을 흡입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었다. 거뭇게 착색된 부분들을 검사 자료로 채취했다. 그날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사실에서 이들 자료들을 즉시 검사하기로 했다.

저녁 6시에 경찰 검사실에서 내게 연락이 왔다. 구강 내에서 채취한 표본에서 총탄의 화학성분인 나이트로셀룰로즈(nitrocellulose)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총구를 그의 입속에 넣고 총을 발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입속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흔히 택하는 부위중

의 하나이다. 손에서 채취했던 자료에서는 총탄 화학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화학물질이 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총을 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에 손이 방아쇠에 닿지 않을 때가 흔히 있다. 특히 작은 체격의 사람들에서 그렇다. 문제의 남편은 미대륙 원주민이었는데 그의 키가 5'6"(165cm)였다. 그에게는 그 총신이 좀 너무 길어서, 손이 방아쇠에 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총구를 입속에 넣은 후 손가락으로 어떻게 방아쇠를 당겼을까 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 다른 자살 예에서 흔히 보다시피, 그가 펜이나 막대기, 아니면 끈 같은 것을 이용하여 방아쇠를 당겼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가 발가락을 사용했을런지도 모른다. 화재로 인한 건물 파괴가 없었으면 그가 어떻게 방아쇠를 당겼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인데, 그 근처 주유소 직원이 그에게 휘발유 한 통을 팔았고, 그것이 화재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이었다고 했다. 이러한 정보가 있기 전에 경찰 검사실이 피해자들의 옷에서 휘발유 성분을 이미 딱딱 발견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총을 쏘고, 집에 불을 지른 후, 자살한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끝낸 것이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Gunshot and Stab Wounds (Video Recording, 45 minutes). Training Tape Library at the Office of District Attorney, Bronx, NY. 1979.
2. 지제근, 송계용, 노용면: 병리학 원색도보, 고려의학 1998.
3. Yong-Myun Rho and Donald Hoffman: The Investigation of Fatal Fire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55:1-8, 1986.

며칠 전에 도서관에서 빌려다 본 영화 'Liberal Arts'와 이 영화 마지막 Credits 부분에 쓰인 노래 Favorite Song이 마음에 남는다. 이 영화는 Josh Radnor가 각본을 쓰고 감독, 주연한 그의 두 번째 영화이다.

35세인 주인공 Jesse(Radnor)가 19세인 여대생 Zibby(Elizabeth Olsen)와 사랑이 싹트는 데서 이야기는 출발한다. 2012년 1월 Sundance Film Festival에서 초연 되어 호평을 받았다.

영화 즐겨리는 이렇다. Jesse Fischer(Radnor)는 35세인 뉴욕의 어느 고등학교 대학진학상담 선생이다. 그는 문학과 어학을 좋아하는 책벌레. 최근에 아내와 이혼하여 홀몸이 되었으나 자신의 인생과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는 자기가 제일 행복 했었던 시기가 결혼 전이었던 오하이오 주 어느 Liberal Arts College(종합 대학이 아닌 단과 대학, 미국에는 각주에 이런 훌륭한 조그만 단과대학들이 많다)에서 학생으로 지낼 때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방해 받지 않고 시를 공부 하였던 때를 그리워한다.

어느 날 그에게 자신의 영문학 은사였던 Peter Holberg 교수에게서 그의 교수 은퇴기념식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온다.

다시 모교를 방문한 Jesse는 Holberg 교수의 친구 딸이자 드라마를 전공하는 대학 이학년생인 19살인 Zibby(Olsen)를 만나게 된다. 은퇴기념 저녁 만찬 후에 우연히 들린 dorm party(기숙사에서 열리는 파티. 음주를 주로 하는 파티이다.)에서 Zibby를 다시 만나게 되고 다음날 커피를 마시기로 한다.

지비와 만난 제시는 그날 오후 둘이서 캠퍼스를 거닐며 인생과 책과 음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학생때 문학교수였고 자신이 오랫동안 흠모해 마지않았던 Judith Fairfield(Janney)를 만난다. 둘이 헤어지기 전에 지비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자고 하며 둘은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이 아니고 직접 종이에 펜으로 글을 써서 보내는 편지로 연락

을 주고받자고 하여 둘은 펜팔이 된다. 지비가 제시

에게 자기와의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하려 대학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다. 제시는 16년이라는 나이차이 때문에 주저하다 결국은 승낙한다. 제사가 종이에 써 보는 나이차이 공식: 제시 35살 - 지비 19살, 제시 18살 (대학 1학년) - 지비 3살, 제시 16살 - 지비 0살. 둘의 나이 차이를 실감케 한다.

같이 돌아다니던 둘은 홀버그 교수 눈에 띄게 되고 제시는 교수에게서 과거에 집착하여 살지 말고 성장하라는 경고를 받는다.

지비가 둘이 같이 자자는 제의를 하나 이것이 그녀의 첫 경험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제시는 제의를 거절하고 물러난다.

제시는 뉴욕으로 돌아오고 책을 좋아한다는 같은 취향의 Anna(Reaser)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연령에 걸맞은(age-appropriate)' 만나와 같이 늙어 가기로 한다.

우리는 암울하였던 시기에 대학을 다녔고 최루탄 연기와 데모와 휴학을 거치며 졸업했다.

이곳 미국에서는 큰 종합대학 말고 조그만 단과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소위 'little ivy' 라는 이름난

liberal arts college들도 많다. 이 영화를 찍은 곳은 Radnor와 Janney의 모교인 오하이오 주 콜롬버스 시 근처에 있는 Kenyon College 였다고 하는데 캠퍼스와 건물들이 참 아름답다.

우리 아이들도 둘 다 조그만 단과 대학에 다녔고 학부형 방문일에 이들 학교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나

도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러움 섞인 동경심이었다. 아름다운 캠퍼스에 둘러싸인 고풍스런 건물에 담배락을 덮은 담쟁이 넝쿨(Ivy)들. 왜 아이비리그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학부형 참관일이라 개방된 강의실에 들어가 인문학 시간 강의를 경청할 기회가 있었다. 고작 6명의 학생들이 반원형으로 책상을 놓고 교수님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강의는 진행 되었다. 교수의 질문: 왜 chiropractor (정골의사)가 많이 있는 곳에는 종교 cult 신도가 많은가?

교수가 학생 하나를 지적하여 대답을 하게 하면 이 학생은 충분히 책을 읽고 준비를 해왔던지 거침없이 대답을 하였다. 그에 따른 교수의 해석은 gullibility (easily taken in or tricked) 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 참으로 부러웠다. 다 남은 30년 묵은 누런 공책에 농담까지 써 놓고 매년 똑 같은 것을 즐즐 읽던 우리의 교수님들.

나도 돈 대주는 아버지가 있었다면 다시 이런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었다. 아니 은퇴한 지금에도 가끔 그 꿈을

꾸고 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간다면 이런 liberal arts college town에 가서 살고 싶다. 가끔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가고 종종 열리는 음악회에 참석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 살아야 한다. 생존의 두려움이 없이 마음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과 음악을 들으며 인생을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영화에 쓰인 고전 음악들은 교양과 목인 음악 감상에 필수인 곡들이다. 그리고 여기 가져온 노래 'Favorite Song'은 영화가 다 끝나고 영화 만든 사람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credits의 배경으로 쓰였는데 참 괜찮은 노래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credits 마지막 부분까지 다 보아야 덤으로 얻는 것이 있다.

Cast: Jesse Fisher - Josh Radnor / Zibby - Elizabeth Olsen / Prof. Peter Hoberg - Richard Jenkins / Prof. Judith Fairfield - Allison Janney / Dean - John Magaro / Ana - Elizabeth Reaser

Favorite Song (by Kaiser Cartel) End of the day, on the subway - in my ear Along the way, the headphones play - I can hear you

You're my favorite song, I wanna sing it again / yeah my favorite song / Sing it to ya yeah ah ah ah

Stuck in my head, replaying again, - I don't mind / Stuck in my heart, finish to start, - it's all right / You

You're my favorite song, I wanna sing it again / yeah my favorite song / Sing it to ay yeah ah ah ah

Into it, into it, with you and I'm into it / Into it, into it, yeas I am / I wanna sing it again...

You're my favorite song, I wanna sing it again / yeah my favorite song Sing it to ay yeah ah ah ah

영화 Liberal Arts Mrs. 이견일(68, 오하이오)



# 이형모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 병 봉 (63, 버지니아)

조세진 교수에게서 서울의대회보 시계탑에 얼마 전 돌아가신 이형모 선생님에 대해 한 마디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나와 이형모 선생님 간의 반세기에 걸친 관계를 어찌 한 마디로 표현 할 수 있을 지.

함께 Virginia Beach에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솜씨를 보여 주시며, "음식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거야!" 하시며 자랑하시던 일, 밤늦게 급히 택으로 불러서, 워싱턴에서 사오신 한국 김치를 병 채로 들고 함께 끝내던 일, 해산물에 심한 알러지를 가지신 분이 샌프란시스코에 함께 갔을 때, 못 참으시고 해물/조개를 잡수시고 순식간에 얼굴이 부으셔서 야단 법석 하던 일, 밤늦게 병원에서 수술-장기이식-을 마치고 급히 공항으로 마지막 비행기를 타러 가던 중, 환소만큼 큰 사슴을 받아 넘겨 큰 사고가 날 뻔한 일 등, 밤을 새워 이야기 할 만큼 너무나 많은 사연을 남기셔서 너무나 감회가 새롭다.

1968년 11월 늦은 밤에 리치몬드 버지니아 공항으로 나를 픽업하러 나오셨던 이 선생님은 당시 40대의 젊은 조교수로 세계적 명성을 가지신 버지니아 의과대학 외과 David Hume 교수의 오른 팔이라 할 만큼 크게 존경을 받던 분이시었다. 그 첫 대면 이후 이 선생님은 나에게 돌도 없는 대부(God Father)이시자 대형(Big Brother)으로 나를 미국 외과 전문의로 재탄생을 시켜 주신 mentor 이시었다.

돌이켜 보면, 내 인생의 여러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도와 주신 분이시니, 모교 서울대 의과교실에서 2년 장기 출장의 허락을 받아, 당시 이식외과의 메카였던 버지니아 의과대학으로 연수-Fellowship-를 받도록 Hume 교수에게 허락을 받아주신 분도 이형모 선생님이고, 이어서 미

국의과 전문의 수련(residency)을 당시 FMG에서는 원서조차 안받던 버지니아 의과대학 외과에서 받도록 Hume 교수에게 다시 한 번 허락을 받아 주신 것도 이형모 선생님이다.

이런 일생일대의 미국의과 전문의 수련의 기회를 앞두고 모교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사표를 내고 다시 한 번 도전 -다시 외과 수련은 15명 중에서 6명만 Chief Resident 로 뽑히는 치열한 경쟁의 Pyramidal 식- 해보느냐로 고민 고민 할 때에, 이 선생님 덕을 수 없이 찾아가 새벽 3시까지 버티고 앉아, 이 선생님은 물론 사모님께도 얼굴이 화끈할만큼, 열치없이 폐를 끼친 때에도 항상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이 선생님 계셨기에, 그 결정이 가능하였다. 더 더군다나 20년이 지난 90년대에 까지 가셔도 이 선생님은 다시 한 번 나에게 결정적이 도움을 주셨으니, 삼성병원 외과 건립에 초청 받았을 때에도 모국에 진 신세를 갚을 마지막 기회라 하시며 강력히 일시 귀국을 권하셨던 분도 이 선생님 이시었다.

이처럼 나를 미국 혈관 이식외과의로 만들어 주신 분도 이형모 선생님 이시고 그 후 존스 홉킨스와 조지타운대학에 Academic surgeon으로 자리잡도록 계속 돌보아 주신 분도 이 선생님 이시니, 은퇴하신 후 서서히 쇠잔해 가시는 것을 볼 때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 이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나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에게는 특수한 외과의로서의 재능(talent)을 가지신 분 -일컬어 Born surgeon- 으로 기억 될 것이며, 그분의 탁월한 수술 솜씨는 '신기(magic touch)' 로 칭송 되었고, 그분의 제자들 간에 legendary(전설적)하게 남아있다.

일컬어, 세계적 명성의 David Hume

교수도 이 선생님의 숨은 뒷바라지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고, Hume 교수에게는 이 선생님이 'Safety net/blanket' 이었다는 사실은 그 모든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항상 겸허하시고 온화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으로, 항상 남을 아낌없이 도와주셨기에, 그 많은 제자들에게는 'Gentle Korean' 으로 애칭되고, 대신 그와 못한 나는 나의 수련 동료(roommates)들 간에는 'Wild Korean' 으로 놀림을 받

으며, 혹시나 나로 인해 이 선생님이 남기신 한국인에 대한 image가 손상될까 "I am from the North Korea but HM is from the South" -사실은 반대!- 라고 농담을 하곤 했다.

지금도 이 선생님은 나와 함께 계시매, 내 교수실에 들어오면 정면 벽에 Hume 교수 사진과 함께 걸린 이 선생님 사진 속에서 그 온화하시고 항상 미소를 동반한 눈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선생님 이시다.

이 글을 이 선생님의 영전에 바치고 싶다.

Reston, Virginia에서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B.B.Lee, M.D, PhD, FACS



VCU News Center에 이형모 선생님의 추모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들. [http://www.news.vcu.edu/news.HM\\_Lee\\_Organ\\_transplant\\_Pioneer\\_Dies](http://www.news.vcu.edu/news.HM_Lee_Organ_transplant_Pioneer_Dies)

서울의대 E-News Letter인 "함춘인사이드"를 서울의대미주동창회 website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snucmaa.us로 들어 가시면 원편의 Banner에서 시계탑 밑에 함춘인사이드 가 있으니 그 곳을 Click하시면 아래와 같이 매 달 나오는 E-News Letter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Alumni Freeboard에도 차후 오르게 될 예정 입니다.

### 함춘인사이드 월간 Newsletter

아래 각 달을 Click하시어 Newsletter를 보십시오.

일단 Webpage가 나오면,

각 Line을 Click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 2013년 3월호 \* 2013년 4월호 \* 2013년 5월호
- \* 2013년 6월호 \* 2013년 7월호 \* 2013년 8월호
- \* 2013년 9월호 \* 2013년 10월호 \* 2013년 11월호

# 우리의 친구 이종민 형의 죽음을 애도하며

마동일(63, 노스 캐롤라이나)

그리도 어렵게 지병인 당뇨병 관리에 힘겨워 하며 지내더니, 종국에는 먼저 속절없이 가 버렸구나. 거리도 멀고, 50주년 동창모임 서울 여행을 며칠 앞둔 터라 가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어 미안하고 죄송하기 그 지없네. 용서하게나.

누이네 가족들과 같이 살던 그간의 시간이 마음 가볍지만은 않았을 터이니, 최근 형이 가끔씩 생각날 때는 무척 안되었고 측은하게도 생각되었었지. 나보다 2살이나 위였으니 형이라 부르겠네. 일 년에 한번쯤밖에 안부 전화도 못했으니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얼마 전 아마 연초였던가 전화했을 때는 힘없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전화주어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하던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귀에 들리는 듯.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구나.

좋아하던 시조는 아직도 짓고 읊으며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요즘은 성경을 되풀이해 읽는 것뿐이라며 교회도 못 가고 집안에만 있노라고 하였었지. 이제 여러 해 동안 혼자 투병하던 고생이 끝나고 하느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형을 그려보니, 그나마 내 마음이 안정되고 조금은 편해지는 듯

하네. 우리가 학생 때는 같이 어울려 다니지는 못했어도 6년을 한 반에서 지냈고, 포항해군 병원에서 다시 만나 같은 BOQ에서 살면서 사귀기를 이어 나갔었지. 형도 생각나는가 선보았던 처녀 어머니가 보내왔다면 그때는 귀했던 맛있는 육포를 나누어 먹던 일을. 주말에 몇 번 같이 포항 시내로 나가 영양보충한다며 불고기 저녁을 먹고, 만원 합승택시에 짐짝처럼 실려 BOQ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네. 병원에서는 점심식사후면 으레 탁구를 열심히 치며 즐기던 형의 모습도 생생하고.

형은 먼저 제대해서 시카고 근교 Evanston으로 간다고 떠났고, 그 후 여러 해 소식이 없다가 내가 Altoona 란 곳에 잠시 살고 있을 때 Hershey에서 나를 찾아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 내가 처음 intern을 했던 Warren 에 다시 가서 practice를 시작하게 된 후 곧 형이 이웃 동네인 Youngstown 에 왔던가? 아니면 형이 먼저 와있었던가? 아무튼 우리는 다시 이웃동네에 살며 가끔씩 만나게 되었었지.

형은 그때 혼자였었고, 서로 너무 바빠서였는지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만나 옛 이야

기도 나누었고 정답게 지냈었지.

형은 천주교회에 나간다 했고, 나는 그때 막 시작한 하나뿐이던 한인교회에 나가게 되어 주말마다 만나지는 못했었네. 그러다가 형은 젊고 명랑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곧 두 딸도 낳으면서 무척 행복해 했었지. 부인들끼리도 가까이 왕래하고. 크고 좋은 집에서 우리 가족을 초대해 주어 정성 어린 저녁대접을 푸짐하게 받은 기억이 새롭네. 벽에는 멋진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림 설명을 들었었지. 형이 즐기던 와인에 대한 가르침도 듣고.

시야가 좁아진 듯 하다더니, 급기야 Atlanta에 가서 pituitary adenoma 수술을 받으며 한차례 힘든 때를 겪던 형이, 부인의 극진한 병구완도 있고 해서 완쾌되어 그 후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걸로 알고 있었네. 각종 Hormone 제야 필요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골프도 즐기고 유머 감각도 남달라 항상 밝게 미소하며 주위사람들은 즐겁게 웃기던 형이 새삼 보고 싶소 그러.

그 후 사랑하던 아내가 딸들과 함께 떠난 후 한때 의기소침해져서 심리상담도 받고 마사지도 받으면서 견디고 극복하고 있노라 털어 놓던 형을 기억하고 있소. 전부터 보여주던 부드러운 미소도 잃지 않고.

시조를 짓고 읊으며 그 깊은 맛을 즐긴다 하였고, 골프보다 땀 흘리는 테니스를 다시 시작했다며 씩씩하게 살아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소.

언젠가는 커다란 SUV를 몰고 혼자 대륙횡단을 하고 왔노라 자랑도 하였고, 한때는 불교에 심취해 혼자 Tibet 에도 순례하고 돌아와 여행담을 들려 주던 형이었소.

모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노라 나중에야 말해주어, 섭섭했을 때도 있었소.

이번에 형의 시신도 화장해서 태평양 바다에 뿌려달라고 유언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쓸쓸한 감회가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네그러. 넓고 시원한 바다가 좋았나 보구먼, 두 딸들도 태평양 연안에 살고 있고 하니 가까이에 있고 싶었을 것이고.

혼자되어 큰집 팔고, 아파트에 살 때 찾아가 지병인 당뇨병 관리에 열심인 형의 모습을 본 일도 있었소. 기억하는가?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내 와이프도 데리고 가끔씩 만나 저녁식사하며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노닥거리던 때를... 내 와이프 앞에서 허물없이 농을 하며 대해주었지. 그때 Cognac 한잔씩 시키면서 이 술의 별명이 "꿀x지" (Courvoisier)라며 내 와이프 앞에서 농을 하며 웃던 일을 기억하는가? 그런 다정했던 시간을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되었네 그러. 아쉽고 착잡한 감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네. 잘 가게. 이제는 편히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나.

그 옛날부터 접점이 그리운 기억들을 주고 간 친구 종민에게.

# 일 년전에 떠나간 이백기형을 추모하며

박 용 화(58, 미시간)

2주전에 동기 동창회를 선상(하와이 크루스)에서 지냈는데, 우리 동기들 간의 집착력이 어찌도 그리 큰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의 공통된 점임을 절실히 느꼈다.

그것이 우연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지극히 어려운 사정을 극복하여 오늘에 이른 우리들 이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6.25 사변을 전후하여 생사의 지경을 집고 넘겼으며, 재속에서 살아남아간 페닉스와도 같은 존재들이다. 의예과 시절엔 전쟁으로 황폐한 서울을 등지고 남단 부산으로 밀려간 관갓집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몇 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 겹쳐 지내며 자취생활로 지내거나 친척집 골방에서 기식하고 있는 게 고작이었다. 교재도 없어서 필사하여 쓰거나 등사본을 써야 했다. 서울로 환도한 후에도 비슷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해부학 교재도 마땅치 못하여 손으로 그리거나 등사판을 사서 써야했으며 대부분의 수업은 필기에 의존하였다. 근래, 딸집에 방문할 적마다 널려져있는 화려한 해부학 책등을 볼 적이면 부러운 생각을 금치 못하나, 반면에 필사하며 그려가며 공부한 우리가 그만 못할 것이 없다고 자부 감을 느낄 때가 많다. 우리 의예과시절의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을 자랑스럽게 느낄 때가 많다. 동기 동창들에 대한 집착력도 우리 것과 비할게 못되는 것 같다. 우리는 6년이 넘는 세월을 같은 교실과 실험실과 실습장에서 같은 교수들 밑에서 동고동락 하였다. 그뿐이랴? 졸업 후에도 국민의 의무를 수행키 위하여 수년간의 군의관 생활을 하였으며 그 후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어려운 의사 생활로 평생을 보내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거기엔 우리만이 아는 무언의 통화가 있을 것이다.

벌써 일 년 전의 일이다. 이곳 오하이오 켄다스키에 사는 동기 이종영 형의 전화를 통하여 신시내티에 살고 있는 이백기형이 간암 말기로서 얼마 못 살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슴이 서늘하였다. 그 다정하고 낙천가 형의 백기가 벌써! 믿어지지 않았다. 수개월 전에 그가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리 진행된 상태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신시내티까지는 약 260여 마일의 거리이다. 내 부인의 생각엔 가서 오히려 피로한 말기의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고달프고 불편케 해주게 될지도 모르니 잘 생각해서 하라는 경고를 받고는 사전에 전화로 그 부인 Joan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그와는 약 30여 년 전에 이곳 미시간을 방문하여 구면이 된 사이였다. 고마운 생각으로 한숨을 내

쉬고 차를 정비한 후 다음날 출발하였다. 랜싱에 사는 동기 최병두 형에게도 그 계획을 알리니 그도 함께 가겠다고 하였다. 병두와 나만의 단 둘의 여정이었다. 우리는 계속 그간 오륙 십년의 향수(nostalgic)적인 추억을 더듬으며 차를 달렸다. GPS를 따라서 그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엔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었다. Joan이 침울하나 반가운 모습으로 맞아주었다. 우리를 휠체어에 안 내한 후 Joan이 wheel chair에 실은 백기 형을 이끌어 나왔다. 두근거리는 나의 가슴을 느꼈다. 짜증거리고 고통하는 백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꼭 차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특징 있는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얼마나 고마운지 알수 없었다.

문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하여 있었고 극도의 복수를 계속적으로 고무관을 통하여 흘러내고 있었다. 기운이 없어서 준비된 침상에 누워서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부산 피난 시절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는 부산진 친척집에 있었고 나는 근처의 두어 평짜리 좁은 방에서 고향친구(치대학생)와 더불어 자취하고 있을 때 서로 방문하고 격려하며 지내던 이야기! 만원된 전차 속에서 쌀이든 나의 가죽 가방을 든이 든 가방으로 오인하고 소매치기가 반지에 붙은 칼로 짹 찢어서 쌀(경상도 말로 '살') 이 다 쏟아져 버려서 당황하던 일 등! 웃음의 꽃을 피웠다. 신기할 정도로 고마운 것은 아직도 그 특징 있는 다정한 웃음과 유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특이한 경상도 말로 "아직도 그 커다란 집에서 사나?" 하기에 나도 경상도 말로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불편해서 큰집에서 사나?!" 하였더니 "그럴테지!" 하며 웃어댔다. 자기가 며칠 밖에 살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관이나 슬픔의 기색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완전히 정상적인 마음자리(Mentality)에 참으로 평안하다는 것이 감명적(inspirational) 이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고달파 할까 염려되어 "이젠 가을 때가 된 게 아닌가?" 하고 은근히 작별의 인사를 깐집어내려 하니, "그렇게 꼭 일찍 돌아가야 하나?" 하며 섭섭해 하였다. 마치 남녀 간의 작별과도 같았다. "그러면 좀더 있다 가도 될까?" 하였더니, "고맙다!" 하며 환한 웃음을 지어 주었다. 한국말을 아직도 못하는 그의 부인 Joan은 우리끼리 마음대로 정답을 나누도록 멀리 가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눈치를 차리고 슬쩍 빠져나가 좋은 일식 음식(스시)을 사들고 돌아왔다. 그도 우리를 어찌나 반가이 맞아주는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수일전까지도 호스피스(Hospice)에 있었는데 백기의 요청으로 그가 얼마동안 이라도 집에 와있고 싶어해서 들어왔다고 하였다. 특히 Joan이 간호사이기에 그

들도 그것을 승인했던 모양이다. 백기가 지친 모습도 안 보이고 대화를 즐기는 것이 분명하기에, "의예과 시절에 박충집 교수가 가르친 The Great Stone Face의 이야기를 기억하냐?" 하며 또 이야기를 꺼냈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기에 그 즐거움을 이야기 해주었더니 좀 생각이 난다며 또 한참 꽃을 피웠다. "그것이 뉴햄프셔에 있는 것이더군!" "그래!?" 하며 함성을 냈다.

미국 땅에까지 이렇게 와서 서로 교통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수 없었다.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 섭섭해도 작별해야 할 시간이 다가 오고 있음이 안타까웠다. 사실 백기는 진리와 과학과 아름다움(문학/예술 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친구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전에는 그리 종교적인 성향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조심스럽게 "가기 전에 기도 좀 해도 좋겠나?" 하고 물었다. 그는 만족한 웃음을 띠며 "그거야 좋지 않겠나?" 라고 답하여 주었다. 너무나 고마웠다. "주여! 이같이 좋은 친구와 더불어 이 세상을 벗어나며 살아오게 해주심과 이 친구에게 Joan과 같이 좋은 부인을 주신 것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친구 백기가 고통 없이 평안히 웃어가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계속 주님의 품안에 보호해주시기" 를 주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였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섭섭함을 감춘 채 그 다정한 미소로 우리를 보내주는 백기가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곧 또 방문할게!" 하며 허그(hug) 하여 작별을 고하였다. Joan도 우리의 방문을 참으로 고맙다고 하였다. 돌아오는 2백 60여 마일은 무거운 길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방문했다는 것이었다.

그다음 주일에 나의 부인 정숙(Helen)의 동기동창회 때문에 뉴욕을 일주일 다녀오게 되었는데 Joan으로부터 백기가 소천(passed away)했다는 Email이 왔었고 그들이 다니는 그곳 천주교회에서 미사 장례식을 한다는 소식이었다. 생전에 방문했던 것이 참 잘한 일이었다고 다시금 생각하였다. 이 마당에서 우리 동창들에게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친구가 말기의 병에 걸렸을 경우엔 같은 주나 인접 주의 동기들이 기왕이면 생전에 방문해 주자는 것이다.

(아래에 Joan과의 Email들이 그 부부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에 부록으로 수록함.)

Dear Yong, 10. 16, 2013  
Thank you for your remembering Paikky's life. It would be wonderful if you would write memories of Paikky and a fitting tribute to his very successful and bountiful life. Please send me a copy of your fond memories so that I can share them with his children and grandchildren.  
I had a Mass for Paikky on the date of his death, September 19, 2012 at 8:08AM. He went without pain and very peacefully. Paikky's three daughters, Lisa, Laura and Nina who live in Cincinnati, and I celebrated Paikky's memory with a wonderful dinner at a very nice restaurant. We looked at some pictures from his life and toasted Paikky with his favorite red wine. We also dined on his favorite fish.  
Thank you so much for your thoughts and memories. Paikky was an exceptional man. Fondly, Joan Lee

Dear Joan, 10/15/2013  
How are you doing with your beloved children. We, class mates of 1958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had reunion on the sea (Hawaiian cruise) during the third week of last September and we had many nostalgic conversations about our friends, including Paikky, our friend.

Recalling the unforgettable last meeting with Paikky, I thought I may write a short story for my alumni friends. I thought the one year anniversary of Paikky's passing was approaching and checked our last Email communication. I am shocked to find one year have already passed. Time flies! I know he passed away a few days after my visit. I like to know exact date of his passing. I am thinking of writing about our fond memories to share with friends.

I pray and hope everything goes well with you and your family.  
Fraternally, Yong

Dear Joan and Paikky, 9/5, 2012  
It was nice to visit with you a few days ago. We thank God that Paikky has such a loving and caring wife as you.

When we were visiting Paikky and chatting with our old memories, we talked about a story of Great Stone Face which we used as a course of english literature during our premedical course at Seoul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Baikky was a lover of truth, science, beauty and literature. Through the internet (Google), I was able to find the writing of Nathaniel Hawthorne. If you enter Nathaniel Hawthorne's story of Great Stone Face in Google search, you can get the whole writing. And If you enter Old Man of the Mountain in New Hampshire in Google search you will get the real background facts and the history. Baikky might have some difficulty of reading the small letters but you could read it for him so that he can recall the beauty of the old literature he and we enjoyed once a long time ago.  
God bless you.  
With fond memories, Yong

## 시계탑 문집 원고모집 안내

1994년부터 매 5년마다 발간해온 시계탑 문집을 창간 40주년을 맞는 2014년 7월에 제5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5집은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시계탑에 게재된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모아 지난 5년간의 추억을 엮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울러 표지에 쓰일 작품도 응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하는 원고 내용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평, 서간문, 독후감, 영화평,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종교적인 내용은 사양합니다.

###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성명과 학년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바랍니다. 아래한글, Word를 사용한 word text로는 2매 정도로 e-Mail, or CD로, 모든 산문은 원고지는 200자 12매 내외, 기행문은 23매 내외..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bkimmd@gmail.com

## 시계탑, 시계탑 문집 5호 광고 모집

40년째 발행되고 있는 미주동문들의 소식지 '시계탑' 과 7월에 발간 예정인 시계탑 발간 40주년기념 '시계탑 문집' 제5호에 게재할 유료광고를 신기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광고 내용은 의료와 의사와 관계되는 내용으로서, 동창의 개업안내, 동창의 단체활동 안내, 의사전문 여행사 안내, 제약회사 안내 등입니다.

광고비는 시계탑: 사단광고(1/4 하단) \$200, 문집은 전면 \$500, 1/2면 \$300으로 정했습니다.

동창회의 기금조성을 위한 것이니 많은 참여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위원회

# 회비, 후원하신 동문

2013년 7월 20일 ~ 2014년 1월 10일

- 1941 이규용 1948 한용현 오동렬
- 1949 고영철 김지익 1950 나수섭
- 1951 오정희 이상하 1952 김진문 김정준 김은태 박종식
- 1953 강수상 이상봉 1954 김갑균 이동식 이은희
- 1955 노용면 박병원
- 1956 김익창 김신형 도상탁 민병각 박상기 서상철 유호준 윤신원
- 1957 강영섭 김양호 김용진 김일훈 박건호 박종식 이동성 임종원 임종식 정구영 정진목 한성택
- 1958 김기태 김부근 김백년 김순옥 김석희 김수산 김시한 노인규 류치열 박용화 배영섭 유영호 이민자 이동립 이종용 이장섭 이종국 이상설 이만택 이운순 이희성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병구 김병석 김은섭 김한섭 나길진 박용순 반용균 방석운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종수 한승업 최종진 최용덕 최용천 최혜숙
- 1960 권기홍 김완주 김택경 김영환 박병돈 박춘명 전희근 조재동 오신중 염극용 이순환 이덕송 이상일 임종원 임필순 한성수
- 1961 강세부 강창욱 곽동린 고의걸 김영기 김영철 김유홍 박준환 서휘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재두 이재승 이희경 이희백 장성환 정두현 정의철 조은순 최용성 최태순 황현상
- 1962 구정율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민경환 박종건 박찬형 송영두 손영진 정정수 정 태 조명호 이영웅 이상무 이상복 이석우 이용길 유충국 오태요 최영수
- 1963 권영재 권영조 고영희 김갑중 김광섭 김계윤 김정일 김승태 김주용 김태웅 김택수 김현화 김현철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박세록 서경석 선종철 신경호 신영규 양찬기 왕규현 윤영섭 윤영욱 이기환 이능식 이병준 이승현 이범세 윤진수 장세곤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한광수
- 1964 권정덕 김용두 김원영 박한영 신두식 안연승 안운택 유 강 유광현 유효명 유창남 윤홍기 이광신 이정은 이정필 이주영 이종오 이종성 이유찬 이홍표 임병훈 전희택 정유석 정인태 조동준 조성준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최준희 선우세현
- 1965 구경희 민경탁 박수안 서좌일 손광호 정길화 조성규 지영환 이광선 이정희 이법석 이한중 이화성 홍수용 최영인 채도경 채무원
- 1966 광일성 김용재 김우신 김의신 김충규 민발식 장한교 이영일 이성근 정양수 한일성 황 철 최순채
- 1967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박정일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정화 이준식 이소희 최무웅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명원 김주평 김영남 김 철 노영일 박정식 서진석 서윤석 송창호 이건일 유우영 이대용 임공세 안세현 홍광신 최 철
- 1969 김병오 김중권 김홍서 도상철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임용규 정한규 윤효운 최종일
- 1970 노승국 여준구 유철희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태수 강창홍 곽승용 고기영 김재홍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 훈 김효순 김창구 노재홍 박상호 배성호 서정자 서상현 장 철 정인용 조세진 양성훈 오동환 오상현 이원택 이희영 최수강 최영철 황동하

- 1972 김현배 김재석 이기진 이신재 정희현 최인섭
- 1973 김천일 나두섭 문대옥 민인기 서인석 심완섭 이계석 임준형
- 1974 권철수 이홍제 이진현 1975 김자역 전경배
- 1976 정경화 최광희 1977 강준희
- 1978 전영식 1979 최대용
- 1980 박남훈 1982 차민영
- 1992 조형기 1999 박성철

### 31st Convention Donation

- 강신호(52) 500 임종원(57) 75 김윤범(58) 100 이운순(58) 100 김병구(59) 25
- 한성수(60) 75 최태순(61) 25 박종건(62) 100 손영진(62) 75 권영조(63) 300
- 장세곤(63) 50 전희택(64) 50 정인태(64) 40 허선행(64) 200 정길화(65) 75
- 광일성(66) 25 최순채(66) 75 서운석(68) 30 윤호운(69) 100 강창홍(71) 75
- 곽승용(71) 300 김성환(71)1000 김유식(71) 300 김창구(71) 375 조세진(71) 50
- 배성호(71) 300 이원택(71) 75 문대옥(73) 500 서인석(73) 500 임준형(73) 100

### General Donation

- 이형모(49) 1000 오정희(51) 125 노용면(55) 500 김익창(56) 100 서상철(56) 25
- 한승업(59) 75 권기홍(60) 1000 강창욱(61) 175 이희경(61) 100 최용성(61) 100
- 정 태(62) 375 최영수(62) 100 김계윤(63) 75 이법세(63) 50 권정덕(64) 100
- 김성철(67) 75 이건일(68) 100 임준형(73) 100

### Scholarship Fund

- 이규용(41) 100 김신형(56) 200 강상진(59) 300 김은섭(59) 200 반용균(59) 100
- 이희경(61) 100 황현상(61) 100 민경환(62) 100 이건일(68) 100 서정자(71) 200
- 임준형(73) 100 김자역(75) 500 박범열(81) 100

### Charity

- 최창송(58)1000 노인규(63) 75 정인태(64) 50 홍선경(64) 100 이한중(65) 100
- 강창홍(71) 100 민인기(73) 100 임준형(73) 100

### Green Project

- 최창송(58) 1000 김한중(62) 100 이용길(62) 100 민발식(66) 100 김주평(68) 100
- 김유식(71) 75 조세진(71) 150 서인석(73) 100 임준형(73) 100 박남훈(80) 125

### Member Directory Fund

- 박근수(49) 나수섭(50) 이상하(51) 노용면(55) 김신형(56) 김양호(57) 임종원(57)
- 유상환(57) 정구영(57) 차봉희(57) 김윤범(58) 송세엽(58) 이운순(58) 임영신(58)
- 김용덕(59) 김은섭(59) 김병구(59) 정태진(59) 이교택(59) 최혜숙(59) 박춘명(60)
- 박명근(60) 염극용(60) 우병혁(60) 이순환(60) 이종석(60) 한성수(60) 강창욱(61)
- 김유홍(61) 장성환(61) 진창건(61) 최지원(61) 최태순(61) 황현상(61) 김한중(62)
- 민경환(62) 박종건(62) 윤홍철(62) 이기범(62) 이태봉(62) 권영조(63) 김현철(63)
- 김태형(63) 이법세(63) 송용덕(63) 장세곤(63) 하상태(63) 한광수(63) 권정덕(64)
- 양운택(64) 이홍표(64) 전희택(64) 정인태(64) 허선행(64) 홍선경(64) 이재진(65)
- 이한중(65) 이한승(65) 정길화(65) 채도경(65) 광일성(66) 장한교(66) 정양수(66)
- 최순채(66) 서진석(68) 서운석(68) 서관우(68) 이소희(67) 한영수(67) 차재철(68)
- 최 철(68) 변영석(69) 이승공(69) 이용환(69) 윤효운(69) 방준재(70) 강창홍(71)
- 김성환(71) 김유식(71) 김창구(71) 이성길(71) 이원택(71) 오동환(71) 조세진(71)
- 정진우(72) 오용호(72) 서인석(73) 임준형(73) 오인환(73) 권철수(74) 박인영(75)
- 김대중(76) 김승관(76) 김동수(78) 전영식(78)

## 농담 골목

번호사를 찾아가 그가 받는 비용이 얼마인가고 물었더니, 세가지 질문에 대답 하는데 \$500이라 했습니다. 비용이 그렇게도 많은가고 물었더니, 그가 "그렇소" 라고 하면서 "세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라고 했습니다. (면)

강도가 여자들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본 여자들이 긴장속에 있었는데, 강도가 방구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것을 "나는 그것을 한지가 한참 되는데, 아직도 할 수 있을까?" (면)

여자의 거짓말 :

비밀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입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 남자라는 동물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 이 일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 산부인과가 뭘하는 병원이지요? / 나, 지금 생리중이에요. / 위자료 같은건 더러워서 안받아요. / 난, 아직 아무것도 몰라. 불감증인가 봐. / 섹스 기사 같은건 절대로 읽지 않아요. / 그자식 내가 찾아. / 난, 죽으면 죽었지 거짓말은 못해요.

남자의 거짓말 :

이 호텔 성냥 친구한테서 받은거야. / 난, 공처가거든 당신이 정말 무서워. / 교제상 할수없이 마신 술이야. / 그까짓 직장 당장 사표 내고 말테야. / 난, 조

루증이 아니란 말이야. / 공부하노라 연애했 겨를이 없었어. / 술은 내 돈 내고 안마셨어, 얻어 마셨지. / 난, 오입같은건 못하는 성미야. / 죽도록 사랑해. 당신 없인 못살아. / 난, 거짓말은 절대로 안해. (이덕송)

A. 와 B, 두 아이가 자기네 가족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 A. 내 형님의 그것이 제일이야.
- B. 아니야, 내 형님의 그것이 제일이야.
- A. 내 아버지의 그것이 제일이야.
- B. 아니야, 내 아버지의 그것이 제일이야.
- A. 내 어머니의 그것이 제일이야.
- B. 맞아, 너의 어머니의 그것이 제일이야.
- A.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지?
- B. 나의 아버지가 그렇다고 했어. (규)

사람의 발바닥 가죽이 두꺼운 까닭? 인생은 가시밭 길이어서. (김세-)

70세 할머니가 하는 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사)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